

# 올림픽의 타락과 종말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2018 동계 올림픽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아무 사고 없이 성공리에 잘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열광적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것은 단순히 올림픽이 제우스신을 섬기는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축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 시작이야 어떠했던 지금의 모습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올림픽경기에는 심각한 약점들이 너무 많다.

프랑스 교육자 쿠베르탱 (Pierre de Baron Coubertin)이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조직하고 1896년에 아테네에서 제 1회 국제올림픽대회를 개최했을 때만 해도 그 이상과 실행은 훌륭했다. 스포츠를 통하여 청년들의 정신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세계 모든 나라 젊은이들이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서로

경쟁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흠잡을 것이 없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경기에 참가하고 여자는 승마에만 국한되었으나 1900년부터 여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종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종교, 인종, 국가의 차별을 금지하는 처음의 정신은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자메이카 같은 약소국 선수가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에만 가능하다. 어쨌든 강국과 약국, 부국과 빈국 젊은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서 사귀고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전투행위를 중단하자는 약속과 전통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한이 오랜만에 접촉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쿠베르탱이 염원했던 평화증진이 조금이나마 효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올림픽 경기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타락하여 지금은 계속 개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1972년 독일 뮌헨 경기 때부터 반 올림픽 위원회 (Anti-Olympic Committee)가 조직되었고 지금은 개최 후보지마다 거의 빠짐없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 올림픽은 성경이 요구하는 윤리는 차치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도 미달하므로 그리스도인이 안심하고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부패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뇌물 소문이 끊이지 않고,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한 위원도 여럿이다. 현 위원장은 투명하기로 유명한 독일 출신인데도 그 선임과 관계해서 잡음이 없지 않

다.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민주국가 정부처럼 권한분립이나 대중 선거 같은 견제장치가 없으므로 타락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큰 국제적 행사의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가 이렇게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는데 경기 그 자체는 공정하고 신사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즘 다른 경기들도 비슷하지만 모든 운동경기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 경기에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난무한다 한다. 물밑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시하기가 어려운 수영 같은 경기에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규칙에 어긋난 발질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한 수상자도 있다.

경기(play)의 생명은 공정한 규칙과 그 규칙의 공명한 준수다. 영어로 공정한 경쟁을 fair play라 부르는 것도 그것을 반영한다. 공정성 (fairness)의 전형이 경기(play)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의 목적이 “신사적” fair play 보다는 이기는 것

에 있고, 이기기 위해서는 fair play를 무시하게 된 것이다. 올림픽 경기의 모토처럼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Citius, Altius, Fortius) 움직임으로써가 아니라 상대가 방어하기 어려운 술책을 씌우므로 이기는 것이 당연시 되고 말았다. 신사적인 경쟁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졌다. 선수들이 머무는 올림픽 마을도 성도덕이 매우 문란하다 한다. 서울 올림픽엔 8500개의 콘돔이 사용되었고 리오 올림픽 때는 무려 45만 개가 제공되었다 한다.

올림픽 경기의 타락을 가장 확실하게 과시한 것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직업선수를 포함한 미국의 농구팀의 출전을 허용한 것이었다. 고대 올림픽은 말할 것도 없고 1894년 근대 올림픽이 탄생한 후 20세기 중반까지도 운동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직업선수는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 소련과 동독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부 돈으로 선수들을 “제조” 하여 올림픽에 출전시키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마침내 아마추어 만이란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제는 선수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이 아니라 돈이 승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있고, 중국,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악습을 완전히 못 버리고 있다.

이 모든 타락의 원흉은 돈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임이 올림픽에도 증명되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는 승자가 받는 상이 래야기껏 곧 시들이 버리는 월계관과 관중의 칭찬에 국한되었다. 텔레비전 중계가 불가능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승전한 선수가 받은 보상은 메달이란 명예에 불과했다. 승부욕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어길 유혹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고 경기가 전 세계

이제는 선수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이 아니라  
돈이 승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있고  
중국,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악습을  
완전히 못 버리고 있다.

돈이 올림픽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이다.

로 중계 방송되자 개최지와 후원 기업의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커졌고, 승자들이 받는 보상과 혜택도 늘어났다. 그 때부터 돈이 올림픽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돈 잔치가 되어버린 올림픽 경기는 바로 개최비용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경기 이후 모든 경기는 다 적자였고 특히 지난 번 브라질 경기의 적자폭은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선진국들에는 보스턴, 오슬로 등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는 특이하게도 올림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 88 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국력에 비해서 올림픽에서 거두는 성과가 과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무비판적인 열광이 자칫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특히 타락한 윤리를 당연한 것으로 보게 할까 걱정된다. 